

문화 도시 광주의 미래, '광주 아레나' 유치가 답이다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에 초대형 공연장 아레나(Arena)가 생긴다면 어떨까?

아레나는 1만석-2만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으로, 현재 국내에는 지난해 말 개장한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유일하다. 이후 여러 지역들이 아레나 유치에 나섰다. 서울은 카카오가 사업자로 나선 '서울 아레나' 건립을 시작했고, 경기도 하남시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사와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 유치 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수도권에 초대형 공연장 건립에 나서는 지금, 광주는 뮤지컬과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1500석 규모의 전문 예술극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아레나는 복합 문화시설로 대중음악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아레나 유치가 성공한다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목표로 하는 '꿀잼도시' 광주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다.

광주에서 열린 대형 공연들은 이미 이

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지난 5월 조선대학교 축제에서 열린 뉴진스의 공연에는 4만5000명 이상의 관객이 모였으며, 싸이와 임영웅의 콘서트에도 각각 2만 명, 1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몰렸다. 대중음악 공연의 높은 집객력은 광주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더욱이 향후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이 완료되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관문 공항으로 자리 잡으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광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는 인천보다 더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외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

아레나 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전국에 26개의 아레나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와 'K-아레나 요코하마'는 공연과 스포츠,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영국의 'O2 아레나'는 불모지였던 그린위치 지역을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켰고,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광주 역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레나 건립에 가장 적합한 부지로는

'우치공원'을 꼽을 수 있다. 우치공원은 북광주 IC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공원 내에 공연장을 건립하면 음악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침 광주시도 지난 8월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해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하고, 기존 시설물의 제한 없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유형 변경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필자의 제안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 최대 이슈의 주인공은 공연장 '스피어' (Sphere)였다. 지난해 9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동쪽에 들어선 거대한 구(球) 형태의 스피어는 화제성과 주목도 면에서 CES를 압도했다. 스피어에 쏠린 관심과 인기로 현지 매체들은 "인공지능(스피어)이 인공지능(AI)가 테마인 CES를 상징"을 삼켜 버렸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인공지능 도시 광주에 첨단 기술을 갖춘 아레나가 생긴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세계적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광주 아레나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보자.

社說

광주 철학·가치 지키는 예술축제 만들길

내일 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5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 캐나다 파빌리온 등을 시작으로 열 다섯번째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됐다. 3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다. 개인과 인간이 만든 공간, 그 곳에 오페라적 전시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광주를 소리와 시각이 결합된 문화예술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15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한다.

성년으로 발돋움한 이번 비엔날레의 본전시는 현시대 복잡성의 좌표를 그리는 시도로 전통 공연예술인 '판소리'를 접단의 시각언어로 선보였다. 각국의 국가나 유수의 문화기관이 대거 참여해 세계 전시예술교류의 살아있는 현장, 세계 미술인들의 멋진 무대로 호평을 받아온 파빌리온에 대한 기대도 높다. 비엔날레에 맞춰 광주시가 선보이는 가을시즌 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와 양림동과 무등산 등 지역명소를 연결하는 체류형 예술여행 상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예술과 관광이 조화된 새로운 시너지

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광주비엔날레는 단순한 예술 축제를 넘어 문화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광주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의미 있는 플랫폼이다.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과 국제적인 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 각국의 예술 동향을 소개하는 창구로도 중요하다. 지역 예술가와 지역 문화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 데도 기여해 왔다. 비엔날레가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문화도시 광주의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는 창구이면서 지역민의 자부심인 셈이다.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은 이번 30주년이 세계 비엔날레에 또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엔날레의 철학과 가치를 지켜 성공적인 비엔날레로 만드는 것이다. 관광객을 흡수하고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문화예술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뮤지컬 광주'의 침몰에서 보듯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또 다시 돈을 이유로 내팽개쳐서는 안될 일이다.

민간배달앱 탈퇴한 소상공인 응원한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반발

민간배달앱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에 반발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공배달앱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14일 민간배달앱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수수료 10%를 떼어가는 '배달의 민족'과 결별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자리에 모였던 소상공인들은 구글입력폼을 활용해 '배달의 민족 독립(탈퇴) 1000인 서명' 캠페인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보름만에 2000여명이 공공배달앱에 업장을 등록하고 활발하게 영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배민독립 온라인 서명운동 실시 결과, 총 1547명(소상공인 785명, 소비자 762명)이 참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메프' 도입에 이어 올해 3월 신한은행이 출시한 '맹겨요' 등 2개의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민간 앱 대비 낮은 2%대 중개수수료와 주문 1건 당 평균 3200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 공공배달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내야 할 수수료 총 43억원이 절감됐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맹점 개수는 2021년 2월 1240개에서 1만1002개소로 8배 이상 늘었다. 누적 주문 건은 총 138만건, 누적 매출은 345억 6000만원이다. 이 같은 노력에 광주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17.40%로 전국 3.87%보다 5배 이상 높다.

'배달의 민족에서 탈퇴하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독립선언은 자칫 공공 민간배달앱의 물량공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소상공인들의 이번 단체 움직임에 대해 "탈퇴 선언을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훨씬싼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자는 것인데요. 많이 이용해주시면 한다"고 힘을 보탤다.

소상공인들이 독립선언까지 하면서 대기업과 싸우는 건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처럼 무모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선 생존권이 달려있다. 배달 수수료 걱정없이 맘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광주시민들의 공공배달앱 이용이 필요한 이유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새끼 자이언트 판다 카추사(오른쪽)가 4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어미 덩딩과 놀고 있다. 카추사는 자이언트 판다라는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AP/뉴시스

서석대

"소쩍새야 소쩍새야/솔이 작아 밥을 많이 지을 수 없다/지안/올해엔 쌀이 귀해 끼니 걱정 괴로우니/솔 작은 건 걱정 없고 곡식 없어 근심일세." 조선시대 문인 장유는 누구보다 백성을 위했던 선비였다. 정주학 일변도의 조선 유학을 비판하고 병자호란 때는 주화론을 주장해 전쟁의 고초를 피했다. 백성들의 배고픔도 안타까워 했다. 솔이 작다는 의미의 '솔적'을 소쩍새라는 한자의 음훈으로 표현한 그의 시 '정소(鼎小)'는 흥년을 맞은 농민의 처지를 실감나게 그린 작품이다. 철없는 소쩍새는 솔이 작다고 푸념하지만 뒤주를 박박 긁어도 쌀 한 톨 찾기 어려운 농민의 처지가 딱하기 짝이 없다.

우리 조상들에게 쌀은 단순한 먹거리 이상이었다. 쌀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었고, 재산의 많고 적음도 쌀이 척도였다. 그들은 또 쌀에 신이 있다고 믿었다. 단지에 쌀을 채우고 대청에 모신 것이나 단지를 매년 햅쌀로 채웠던 것도 그 안에 신의 복(福)이 있다고 여겨서였다. 정초에 쌀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해산을 앞두고 산미(産米)를 준비했던 것 역시 쌀과 신과 복을 하나로 본 데서 비롯된 풍습이다. 시인 김지하가 '맑은 하늘'이라고 했던 것도 쌀에 대한 우리 민족의 남다른 애정을 예들러 표현한 것이다.



위기의 쌀 산업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귀한 쌀이 천덕꾸러기가 됐다. 해마다 남아도는 쌀로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농민들의 아우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통계청 조사결과 산지 쌀값은 지난 달 80kg 한 가마에 17만 8476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수확기와 비교하면 20% 가까운 하락이다. 쌀 소비량도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kg으로 30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제발 벼농사를 줄여달라며 안달하고 있다. 그 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협이 재고 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고로 2023년산 재고 쌀이 '천장을 뚫고 나올 만큼'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감소와 매년 들어오는 수입쌀 때문이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쌀 개방 유예 조건이던 쌀 의무수입이 끝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이 수입되면서 쌀값 폭락을 불러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동력은 벼농사와 쌀이라는 원형질 문화에서 나왔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나락 종자를 베고 죽는다'던 우리의 쌀 산업, 5000년을 이어온 우리 문화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쌀 산업의 위기가 안타깝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